

위드 코로나 대응 관광산업 발전 모색

전주시, '단계적 일상회복과 전주관광의 새로운 도전' 주제 전주관광 대도약 세미나 개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주 관광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의 역할 강화와 함께 한옥마을 주변 특화거리를 이용한 체험형 여행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와 전주시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2일 그랜드힐스턴 2층 데이지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전주관광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전주관광 대도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발맞춰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업계 중심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세미나는 전주시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장유성(췌전주관광 마케팅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조오익 현대관광여행사 대표와 주민환 전주한옥마을체험숙박업협회장, 이금실 장안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 등 관광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필요성과 운영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금실 교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 스스로 관광현안과



전주시와 전주시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2일 그랜드힐스턴 2층 데이지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전주관광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전주관광 대도약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 및 문제해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기획과 추진을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면서 "기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성 창출을 통한 자립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양원일(췌전주관광마케팅 부부장은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코로나 시대

전주 관광의 전·후 비교'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양 부부장은 "관광객들의 검색어 순위에서 '웨리단길 맛집', '꺄리단길 맛집' 등의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비추어보면 한옥마을 중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주 관광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한옥마을 주변 특화거리를 활용한 여

행 상품이나 공예, 쿠키클래스, 모빌리티 등 특별한 체험형 여행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식업·숙박업·청년창업 대표 등과 함께하는 '분야별 전주관광 과제발굴 토론'도 진행됐다. 청년창업 대표로 참석한 방성민 우리동네픽 대표는 "전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전주수목원 등 기존의 전주 대표 콘텐츠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만족시킬 새로운 관광아이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안전관광을 위한 결의를 진행하는 한편 전주여행상품 및 음식여행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됐다.

향후 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관광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주시민의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음식·문화가 연계된 관광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전주시 관광거점추진단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 전주시가 한옥마을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도시로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진북동 도토리골 재해예방공사 완료

전주시, 2억원 투입 석축·우수관로설치 등 사업 추진

과거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전주시 진북동 도토리골이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안전한 마을이 됐다.

시는 진북동 도토리골 새뜰마을에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석축과 우수관로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도토리골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지난해 방법용 CCTV와 가로등 등 생활방범시설 설치를 도운데 이어 올해는 잦은 침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재해예방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시는 집중호우 시 도토리골을 둘러싼 입야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토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수관과 집중정 등을 정비하는 데 힘썼으며, 집중호우로 무너졌던 석축도 안전하게 설치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도토리골 재해예방공사를 통해 그간 상습적인 침수로 고통 받았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뜰마을 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팔복동, 풍남동 승암마을, 진북동 도토리골, 남노송동, 동안산동 등에서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윤상 기자

수도요금 전자고지서로 받으면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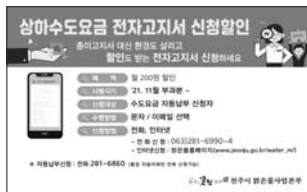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문자·이메일로 받으면 월 200원

전주시가 환경보호와 고지서 발행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수도요금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시민들에게 월 200원씩의 요금을 할인해준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종성)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종이 아닌 문자 또는 이메일 등 전자고지서로 받으면 월 200원씩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수도물 사용량이나 사용기간, 수도요금, 납부방법 등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전주시 수용가의 18% 정도가 이용 중이다.

종이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로 받게 되면 종이사용량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와 연 4000만 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발행 관련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으며, 월 200원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 분실·훼손으로 인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자고지 신청은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www.jonjuga/water_m) 또는 전화(063-281-6990~4)로 가능하며, 자동납부(자동이체, 카드)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상수도 요금액의 1%, 최대 5000원의 할인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김종성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통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을 절감시키는 효과와 이용자 편의 증대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전자고지서 신청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 비용 확대 지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 따라 50%→70% 확대

전주시가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 비용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종성)는 지난 9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기존 50% 수준에서 70%까

지 확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은 건축물 내부의 부식성 노후 급수관을 개량(세척, 갱생,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실 물가와 대비해 낮은 지원금이 지급돼왔던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금이 상향 조정됐다.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가 50% 이상인 분양주택단지) △학교 △수급자 소유 주택 등이다.

85㎡ 이하 주거용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인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다가구주택(330㎡ 이하)은 최대 350만 원까지,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은 총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개소의 노후 급수설비 교체를 지원했다.

김종성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육내 급수관의 노후화 또는 부식으로 인해 부적합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복지 특화사업 성공 추진 최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복지 특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췄다.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회장 정원선)는 2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3층 강의실에서 35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위드 코로나 대비 동 협의체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의 특강에 이어 올해 복지공동체 사업 중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또 다음 달 추진될 예정인 코로나19 극복 한마음 음악회 등

동별 복지 특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연합회의 지원사항 및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원선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장은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교육을 통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선진지 벤치마킹

및 전문가 특강 등을 진행해 복지사업 관계자들의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35개 동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있는 최일선의 민·관 협력조직인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조직되었으며,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